

플라스틱, 신의 축복에서 저주가 되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생각할 때

우리네 삶에서 플라스틱, 비닐 없는 삶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 당장 앉아 있는 의자부터 키보드, 마우스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는 문제로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온갖 생명체가 플라스틱 공해에 시달리고 기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_편집실 도움말_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플라스틱, 지구촌에서 퇴출될까?

바다거북 코에 박힌 빨대를 잡아 빼자 피가 철철 흘러내린다. 죽은 바닷새 위장에는 온통 플라스틱 조각뿐이었다. 바다 한가운데 플라스틱과 온갖 쓰레기로 거대한 섬이 생긴 곳도 있다.

이처럼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까지 바꾸며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자 유럽연합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 퇴출 운동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은 뒤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28일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 빨대, 그릇, 면봉, 풍선 막대 등에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춰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도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결정했고, 국내에서도 스타벅스가 종이빨대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 줄이기 ...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 대책

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하기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은 약 36.5%로, 내년까지 15.5%로 낮추고 2020년에는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활용 포장재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한다. 전체 비닐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해당하는 비닐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활용 수익률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를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출고량 전체에 대한 재활용 비율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장은 줄이고 사용도 자제하고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닐과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택배나 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강화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량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품은 우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휴대용 물통 등을 사용하면 가격 할인이나 리필 혜택 제공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 도입과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도 개선하는 한편,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를 정비하고 컵 재질의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 박스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줄인다. 제과점에서 종이봉투 사용을 촉진하고 재래시장에서는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위해

이처럼 정부는 물론, 개인 소비자도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 자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관 또한 친환경 시대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4일 환경부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회용품 줄이기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 미래 세대를 생각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소비자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TIP



플라스틱의 탄생

‘세기의 발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플라스틱의 역사는 18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는 1937년 미국에서 열렸다. 카로라이스 박사가 내놓은 ‘나일론’은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며 견사보다 좋은 섬유’로 일약 20세기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세탈 수지가 태어났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충격강도,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금속을 대신해 기계부품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후 100여 년 만에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물질로 자리 잡았다.